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JBLI Jeonbuk Labor Economic Trends Briefing

김 연 탁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BLI LETB 2021.7. | No.4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발행일 | 2021. 7. 1.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ISSN | 2765 - 5490



목차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4월)	4
2. 고용 분석	5
1) 요약	5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6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8
4. 산업 경기 현황	11
1) 제조업	11
2) 비제조업	14
3) 수출입통계	18
5. 가계동향	20
1) 소비자심리지수(CCSI)	20
2) 소비자동향지수(CSI)	21
6. 현황 및 대안	22
1) 보고서 요약	22
2) 이후의 대안	23

1. 전북지역 고용·노동 현황(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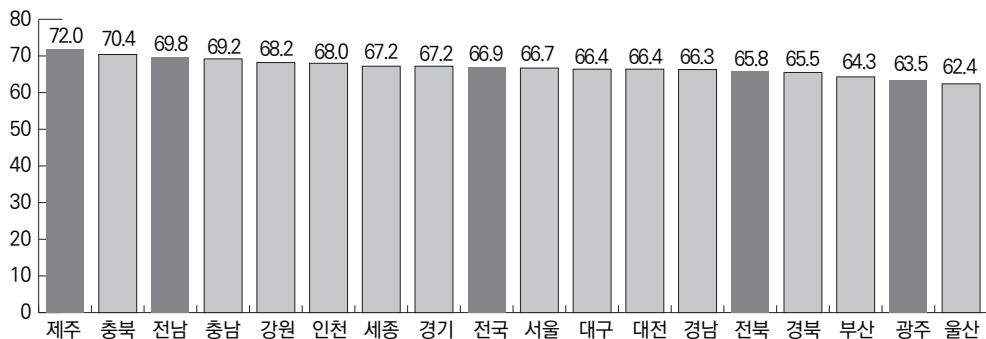
〈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5월현황/전년동월대비 증감				4월 현황/전월대비 증감			
		전 국		전 북		전 국		전 북	
전 체		27,550	▲619	961	▲31	27,214	▲652	948	▲35
성별	남성	15,645	▲263	530	▲6	15,514	▲278	532	▲13
	여성	11,905	▲356	431	▲25	11,699	▲374	416	▲22
연령별	15~29세	3,908	▲138	100	▲14	3,832	▲179	102	▲17
	30대	5,291	▼69	141	▼6	5,263	▼98	140	▼3
	40대	6,327	▼6	204	▲1	6,301	▼12	204	▼1
	50대	6,447	▲100	225	▼2	6,410	▲113	223	▼3
	60세 이상	5,576	▲455	292	▲24	5,408	▲469	279	▲24
산업별	농림어업	1,548	▼3	181	▼8	1,476	▼3	176	▼9
	제조업	4,397	▲19	116	▼10	4,386	▲9	120	▼6
	건설업	2,111	▲132	78	▲0	2,075	▲141	79	▲4
	도소매음식숙박업	5,524	▼132	161	▲17	5,492	▼121	160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636	▲464	340	▲25	10,441	▲454	326	▲1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321	▲140	84	▲6	3,331	▲174	86	▲11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5,587	▼14	257	▲9	5,545	▼38	255	▲3
	무급가족종사자	1,075	▼10	81	▲3	1,023	▼39	77	▲0
	상용근로자	14,819	▲355	430	▲19	14,712	▲311	427	▲20
	임시근로자	4,760	▲307	149	▲7	4,667	▲379	147	▲17
	일용근로자	1,309	▼20	44	▼7	1,268	▲38	43	▼5

〈 시도별 15~64세 고용률 〉

(5월 기준, 높은순, %)



2. 고용 분석

1) 요약

- 5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1,55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감소하고, 전월 대비 1천 명 증가함.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임. 경제활동인구는 9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 명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1천 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는 57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천 명 감소, 전월대비 10천 명 감소함.
- 5월 기준 전북 지역의 취업자는 96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천 명, 전월 대비 13천 명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2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천 명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천 명 감소함. 고용률1)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2.0%p, 전월 대비 0.8%p 상승하였음. 실업률2)은 2.1%로 전년 동월 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0.2%p 감소함.
- 5월 기준 전북 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5.8%로 전국 평균(66.9%)에 미달함. 전년 동월 대비 2.2%p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0.4%p 상승함. 2020년 12월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지만, 4월부터 전국 평균에 미달함. 농업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전북지역의 열악한 고용현황을 감안할 때,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 예상됨.
- 2021년 1/4분기 기준 전북지역의 청년고용률(15~29세)은 34.4%로 전년동분기대비 4.1%p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함. 이 수치는 전남(34.0%, 5.3%p 하락)보다는 약간 높지만, 전국 평균 42.1%(전년동분기 대비 0.5%p 하락)은 물론, 광주(38.6%, 2.1%p 하락), 제주(41.4%, 0.5%p 상승)보다 낮은 상태임.
-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전북지역 고용 현황은 성별로는 남,여 모두 증가, 연령별로는 15~29세 및 60세 이상 대폭 증가, 30대와 50대 감소함.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대폭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지위에서 증가함. 특히 상용노동자가 많이 증가함.

1)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5월 기준, 전월 대비 전북 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성은 감소, 여성은 증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증감의 폭이 미미함.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증가(+14천 명)했으며, 제조업이 감소(-4천 명)함. 종사상 지위에서는 모두 증가함. 특히 무급가족종사자가 전월(+10천 명)에 이어 가장 많이 증가(+4)했으며, 상용노동자 취업자가 전월에 감소(-6천 명)하였으나, 당월의 증가 수(+3천 명)가 전월의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함.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29세 이하,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된 원인이 있음. 이는 29세 이하 서비스업종 취업자 증가와 60세 이상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증가로 보임.
-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북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 연령별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는 정체했으며,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제외한다면, 취업자 수는 감소했음. 종사상 지위로 보더라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전국 수준에 근접할 뿐 임금노동자는 전국의 증가폭에 한참 미달함.
- 전북지역 고용현황이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농도로서의 특징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작은 도세(인구 및 경제지분율 3~3.5% 수준)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1) 성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619천 명 증가함. 남성(263천 명)과 여성(356천 명) 모두 증가함. 전북 지역은 31천 명 증가함. 남성은 6천 명, 여성은 25천 명 각각 증가함.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336천 명 증가함. 남성은 131천 명, 여성은 206천 명 증가함. 전북지역은 13천 명(남성 2천 명 감소, 여성 15천 명 증가) 증가함.
- 전북 지역 성별 고용율³⁾은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69.3%로 0.7%p 상승함, 여성은

3) 15세 이상 성별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54.5%로 3.3%p 상승했음. 전월과 비교하면, 남성은 0.3%p 하락, 여성은 1.9%p 상승함.

(2) 연령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30~49세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지역의 경우는 30~39세 이하에서 감소하였음. 전국과 지역 모두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통계는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지역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연령층에서 취업자수 증감이 담보세임,

(3) 산업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 순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3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132천 명)이 감소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 전북지역은 농림어업(-8천 명)과 제조업(-10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17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5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 명)이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현황은 전기운수통신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특히, 농림어업(+72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5천 명)이 대폭 증가함. 전북지역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만 실질적으로 증가(+14)하였을 뿐,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대체적으로 담보세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를 주목해야 함.

(4) 종사상 지위별 동향

- 전년 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1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천 명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자영업자가 9천 명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 명 증가함.
- 전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는 42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2천 명 각각 증가함.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2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4천 명 증가하였음.
- 2021년 5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28%로 전월 대

비 0.10%p 감소함, 무급가족종사자는 3.90%로 0.14%p 증가함. 전북 지역은 자영업자 26.74%(전월 대비 0.16%p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8.43%(전월대비 0.31%p 증가)를 차지하고 있음. 전북 지역이 전국 대비 자영업종사자 비율이 6.46%p, 무급가족종사자는 4.53%p 더 높음. 전북 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무급포함) 비율은 35.17%를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미국(15%)에 비해 약 2~3배, 유럽(7~10%)에 비해 3.5~5배가 많은 수치임.

-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직종(플랫폼 등)에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전북 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수입규모(평균, 월 100만원 수준)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의 확대를 통해 임금노동자로 수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적절한 생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전년 동월 대비 임금노동자 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용노동자가 355천 명, 임시노동자 307천 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노동자는 20천 명이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상용 19천 명, 임시 7천 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 노동자가 7천 명 감소하였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상용 107천 명, 임시 93천 명, 일용 41천 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지역은 상용 3천 명, 임시 2천 명, 일용 1천 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⁴⁾

(단위 :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19	2020
전국	전체	18,195	18,743	19,230	19,546	19,806	20,083	20,440	20,332
	상용	11,713	12,156	12,588	12,974	13,334	13,772	14,216	14,521
		64.3	64.8	65.3	66.4	67.3	68.6	69.5	71.4
	임시	4,892	5,032	5,086	5,104	4,973	4,851	4,795	4,483
		26.9	26.8	26.4	26.1	25.1	24.2	23.5	22.1
	일용	1,590	1,555	1,556	1,469	1,499	1,460	1,429	1,328
		9.1	8.4	8.3	7.5	7.6	7.2	7.0	6.5

4)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임시직'은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직종을 뜻하며, '일용직'은 하루에 책정된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직종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19	2020
전북	전체	565	571	576	575	577	605	609	603
	상용	347	350	346	366	368	386	400	412
		61.4	61.3	60.0	63.6	63.8	63.8	65.7	68.3
	임시	150	156	162	154	157	155	149	141
		26.5	27.3	28.1	26.8	27.2	25.6	24.5	23.4
	일용	68	65	67	54	52	64	63	50
		12.1	11.4	11.9	9.6	9.0	10.6	9.8	8.3

- 전국 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30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노동자가 312천 명, 일용노동자가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임시노동자는 2016년 5,10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임. 일용노동자 역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임. 임시노동자가 감소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상시업무에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시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계약해지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함.
- 지역 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6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12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 노동자는 8천 명, 일용직 노동자는 13천 명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

구 분		2020										202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전체	19,919	20,244	20,411	20,470	20,446	20,376	20,441	20,678	20,174	19,617	20,078	20,511	20,647	20,888	
	상용	14,401	14,463	14,510	14,528	14,570	14,486	14,448	14,528	14,580	14,622	14,678	14,769	14,712	14,819	
		72.3	71.4	71.1	71.0	71.2	71.1	70.7	70.3	72.3	74.5	73.1	72.0	71.3	70.9	
	임시	4,288	4,453	4,506	4,523	4,539	4,553	4,624	4,738	4,355	3,860	4,190	4,490	4,667	4,760	
		21.5	22.0	22.1	22.1	22.2	22.3	22.6	22.9	21.6	19.7	20.9	21.9	22.6	22.8	
	일용	1,230	1,328	1,395	1,419	1,337	1,337	1,369	1,412	1,239	1,135	1,210	1,252	1,268	1,309	
		6.2	6.6	6.8	6.9	6.6	6.8	6.7	6.8	6.1	5.8	6.0	6.1	6.1	6.3	
	전북	전체	585	604	610	611	610	610	608	629	600	579	612	622	617	623
상용		406	411	416	412	412	413	415	421	423	424	427	433	427	430	
		69.4	68.0	68.2	67.4	67.5	67.7	68.3	66.9	70.5	73.2	69.8	69.6	69.2	69.0	
임시		130	142	141	144	146	146	145	158	134	112	146	146	147	149	
		22.2	23.5	23.1	23.6	23.9	23.9	23.8	25.1	22.3	19.3	23.9	23.5	23.8	23.9	
일용		49	51	53	55	52	51	48	50	43	43	39	43	43	44	
		8.4	8.5	8.7	9.0	8.5	8.4	7.9	7.9	7.2	7.5	6.3	6.9	7.0	7.1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1.3-5.3%p 낮음.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1.9%p 낮음.
- 임시노동자가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으나, 10월부터 다시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다가 12월 들어 (임시직노동자의 감소로 인해) 격차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21년 1월 들어 전국 수준보다 떨어졌으나, 2월 들어 다시 전국수준을 상회함. 이는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9~10개월 꿈수계약의 결과로 보임
- 일용노동자 비중을 보면, 2021년 5월 기준 전국평균에 비해 0.8%p 더 높음.
- 전반적으로 전북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전국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냄.
- 아래 <보론>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지수는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음. 전월에 비해 13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7천 명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노동자는 6천 명 증가하였음. 일시휴직자는 1천 명이 증가하였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0.2시간이 증가하였음. 수치로만 보면 근로조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종사자, 자영업자(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나 농림어업종사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현실에서 지수의 개선이 근로조건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보론> 전북 지역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간, %)

구 분	2020												2021					전월 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률
전 체	907	904	907	913	931	944	946	943	951	956	966	917	893	928	947	948	961	13
36시간 미만	253	240	217	300	213	210	240	249	223	217	257	252	255	275	255	217	224	7
36시간 이상	633	627	638	571	699	719	694	679	715	726	698	652	625	638	684	724	730	6
일시 휴직	21	38	52	42	19	15	13	14	13	14	11	13	13	15	8	7	8	1
주당평균 취업시간	37.5	36.9	37.3	36.9	39.1	39.7	38.8	38.5	39.1	39.7	38.5	37.6	37.2	36.8	38.2	39.2	39.4	0.2

4.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1)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6월)

- 2021년 6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⁵⁾는 90으로 전월대비 7p 하락. 7월 업황전망 BSI는 88로 전월 대비 9p 하락, 전국의 경우 6월 실적(98)은 전월보다 2p 상승, 7월 전망(99)도 2p 상승.

		2020											
	장기 평균 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황 ²⁾	74 (79)	63 (60)	57 (67)	58 (62)	51 (60)	52 (47)	45 (52)	43 (47)	51 (43)	57 (54)	63 (59)	69 (67)	66 (70)
〈전국〉	78 (81)	76 (73)	65 (77)	56 (69)	52 (54)	49 (90)	51 (49)	59 (51)	66 (61)	68 (68)	79 (68)	85 (76)	82 (81)
		2021											
	장기 평균 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업황 ²⁾	74 (79)	67 (66)	72 (67)	76 (78)	87 (79)	97 (86)	90 (87)	(88)	-7 (-9)				
〈전국〉	78 (81)	85 (77)	82 (81)	89 (85)	96 (91)	96 (98)	98 (97)	(99)	+2 (+2)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4) 5월 실적BSI 및 6월 전망BSI는 6월 실적BSI 및 7월 전망BSI와의 비교를 위해 실효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치로 수정하였음.

- 매출 BSI : 6월 중 실적은 108로 전월대비 6p 하락, 7월 전망(106)도 전월대비 5p 하락.
- 재산성 BSI : 6월 중 실적은 80로 전월대비 10p 하락, 7월 전망(82)도 전월대비 7p 하락.
- 자금사정 BSI : 6월 중 실적은 83으로 전월대비 4p 하락, 7월 전망(83)은 전월대비 3p 하락.

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구 분	2020												2021							전월 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전년동월비교	매 출 ¹⁾	69 (73)	69 (76)	70 (74)	63 (73)	56 (58)	53 (59)	51 (53)	56 (52)	65 (59)	69 (71)	72 (71)	78 (77)	81 (74)	87 (83)	95 (91)	111 (103)	114 (110)	108 (111)	(106)	-6 (-5)
	생 산 ¹⁾	76 (79)	73 (83)	74 (81)	66 (77)	62 (64)	59 (64)	55 (59)	64 (60)	72 (68)	77 (74)	75 (78)	84 (77)	82 (83)	85 (83)	99 (96)	106 (102)	109 (106)	107 (106)	(107)	-2 (+1)
	신규수주 ¹⁾	76 (72)	66 (81)	72 (73)	63 (75)	58 (60)	58 (61)	57 (57)	61 (58)	70 (68)	76 (71)	73 (78)	82 (75)	84 (81)	82 (87)	95 (91)	102 (101)	106 (103)	104 (105)	(102)	-2 (-3)
	가동률 ³⁾	72 (72)	75 (78)	71 (79)	65 (73)	60 (62)	56 (62)	60 (55)	64 (62)	73 (68)	74 (76)	80 (77)	85 (82)	84 (84)	83 (85)	98 (93)	107 (103)	109 (107)	106 (108)	(104)	-3 (-4)
전월비교	채산성 ⁵⁾	80 (79)	74 (82)	72 (76)	69 (71)	72 (65)	71 (70)	72 (71)	77 (71)	78 (80)	75 (80)	83 (78)	81 (83)	81 (82)	79 (82)	78 (83)	90 (80)	90 (91)	80 (89)	(82)	-10 (-7)
	원자재 구입가격 ³⁾	112 (109)	117 (113)	113 (114)	105 (112)	103 (102)	105 (106)	111 (104)	115 (108)	117 (113)	115 (116)	117 (114)	121 (119)	134 (124)	140 (132)	148 (136)	149 (142)	150 (146)	153 (145)	(148)	+3 (+3)
	제품판매 가격 ³⁾	90 (86)	90 (91)	87 (88)	83 (84)	79 (81)	82 (80)	89 (80)	90 (83)	94 (91)	93 (95)	100 (95)	98 (99)	101 (100)	101 (102)	108 (101)	112 (108)	112 (111)	114 (114)	(113)	+2 (-1)
	자금사정 ⁵⁾	73 (75)	70 (76)	64 (70)	62 (65)	65 (60)	63 (64)	69 (60)	65 (67)	70 (68)	71 (70)	75 (73)	79 (77)	77 (75)	75 (79)	74 (78)	85 (78)	87 (87)	83 (86)	(83)	-4 (-3)
수준판단	제품재고 수준 ²⁾	110 (105)	112 (110)	113 (113)	107 (113)	107 (112)	109 (111)	113 (112)	108 (113)	102 (109)	108 (102)	105 (106)	99 (106)	103 (100)	99 (101)	100 (98)	95 (99)	93 (95)	99 (98)	(100)	+6 (+2)
	생산설비 수준 ²⁾	108 (108)	109 (108)	109 (108)	113 (109)	110 (115)	116 (111)	116 (114)	110 (114)	107 (109)	107 (108)	106 (107)	106 (105)	107 (107)	103 (107)	104 (105)	103 (105)	102 (103)	104 (101)	(105)	+2 (+4)
	설비투자 실행 ⁴⁾	87 (87)	92 (88)	86 (94)	87 (85)	83 (84)	86 (87)	86 (85)	89 (87)	89 (89)	92 (92)	91 (92)	90 (92)	90 (91)	95 (91)	95 (95)	96 (96)	102 (94)	101 (104)	(101)	-1 (-3)
	인력사정 ²⁾	95 (97)	101 (100)	101 (99)	100 (106)	100 (105)	108 (102)	107 (108)	101 (108)	100 (98)	98 (103)	98 (98)	94 (98)	99 (97)	94 (102)	89 (94)	89 (93)	78 (91)	79 (82)	(83)	+1 (+1)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7) 5월 실적BSI 및 6월 전망BSI는 6월 실적BSI 및 7월 전망BSI와의 비교를 위해 실효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치로 수정하였음

- 6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6.5%), 내수부진(21.5%),인력난 · 인건비 상승(14.0%)등이 상위를 차지함. 전월과 비교시 불확실한 경제상황(16.8%→11.4%)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 내수 부진(18.7%→21.5%), 원자재가격 상승(25.0%→26.5%), 자금부족(7.1%→8.5%)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

(2) 광공업⁶⁾ 생산동향(5월)

- 5월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 전월 대비 0.8% 감소함(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 전월 대비 0.8% 증가,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20.7%, 전월 대비 7.6% 각각 감소)
- 5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음료, 금속가공,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이 증가함.

(2015=100, %/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p	1/4	2/4	3/4	4/4p	1/4p
지수	원 계 열	97.1	91.2	90.9	92.8	87.3	92.5	86.0	88.0	83.1	83.0	88.6	90.7
	계절조정계열	-	-	91.4	90.6	91.1	89.7	-	87.7	82.6	84.6	87.1	91.1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2.5	-6.1	-7.4	-6.4	-5.5	-5.8	-5.7	-3.2	-10.5	-4.9	-4.7	2.6
	전월(기)비	-	-	-4.3	0.0	0.1	-1.5	-	-2.2	-5.8	2.4	1.4	4.6

구 분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p	2p	3p	4p	5p
지수	원 계 열	87.9	81.8	94.2	88.5	79.5	81.3	84.0	74.1	90.8	86.2	87.7	91.1	90.8	83.3	98.2	95.0	91.0
	계절조정계열	91.1	82.6	89.3	90.3	77.5	80.0	82.5	80.0	91.2	88.2	86.5	87.0	87.2	94.0	92.2	92.8	92.1
증감률	전년 동월(기)비	-8.8	1.9	-1.8	-6.8	-16.1	-6.7	-9.8	-11.3	6.4	-8.5	-5.5	-0.8	2.8	1.5	3.7	6.9	14.0
	전월(기)비	2.1	-9.3	8.1	1.1	-14.2	3.2	3.1	-3.0	14.0	-3.3	-1.6	0.6	0.2	7.8	-2.0	0.8	-0.8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생산)

기 계 장 비	55.4%	농업용트랙터, 베어링, 굴삭기
화 학 제 품	30.2%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계면활성제, ABS수지
1 차 금 속	45.1%	봉강, 동박, 강관연결구류
음 료	-15.4%	맥주, 혼합음료, 주정
금 속 가 공	-12.4%	육상금속구조물, 건축용금속공작물
기 타 운 송 장 비	-77.4%	항공기부품(민수용), 특수선박(비상업용)

6) 산업분류에 따르면 대분류로 광공업이고 중분류로 하면, 광업(B)과 제조업(C)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광업에 의한 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봐도 무하다.

2) 비제조업

(1) 일반현황

- 6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월 대비 4p 상승, 7월 업황전망 BSI도 75로 전월대비 4p 상승. 전국의 경우 6월 실적(81)은 전월과 동일, 7월 전망(82)은 1p 상승.

		2020												2021							전월 대비
	장기 평균 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업황 ²⁾	65 (70)	66 (62)	52 (67)	50 (57)	56 (52)	57 (55)	54 (58)	59 (54)	54 (56)	56 (56)	56 (58)	60 (56)	57 (59)	56 (54)	59 (59)	60 (66)	64 (59)	71 (66)	75 (71)	(71)	+4 (+4)
전국	74 (77)	73 (75)	64 (74)	53 (68)	50 (52)	56 (50)	60 (56)	65 (59)	66 (63)	62 (69)	69 (62)	73 (69)	68 (73)	70 (64)	72 (70)	77 (73)	82 (78)	81 (82)	81 (81)	(82)	- (+1)

주: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내는 전망 BSI

4) 5월 실적BSI 및 6월 전망BSI는 6월 실적BSI 및 7월 전망BSI와의 비교를 위해 실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치로 수정하였음

- 매출 BSI : 6월 중 실적은 81로 전월과 동일, 7월 전망(82)은 전월 대비 2p 상승.
- 채산성 BSI : 6월 중 실적은 79로 전월 대비 3p 하락, 7월 전망(81)은 전월과 동일.
- 자금사정 BSI : 6월 중 실적은 77로 전월보다 8p 하락, 7월 전망(77)는 전월대비 6p 하락.

	2020												2021								전월 대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매출 ¹⁾	70 (70)	56 (74)	51 (64)	56 (56)	56 (57)	53 (55)	56 (53)	53 (57)	58 (55)	56 (57)	62 (56)	61 (60)	57 (58)	61 (60)	64 (66)	68 (67)	81 (72)	81 (80)	(82)	- (+2)	
채산성 ²⁾	77 (76)	66 (79)	56 (70)	61 (62)	70 (62)	65 (67)	66 (64)	59 (64)	63 (63)	63 (63)	72 (62)	66 (69)	63 (60)	69 (65)	71 (73)	74 (75)	82 (77)	79 (81)	(81)	-3 (-)	
자금사정 ²⁾	76 (72)	64 (78)	55 (66)	55 (59)	65 (57)	61 (61)	66 (58)	57 (61)	61 (59)	65 (59)	69 (63)	65 (68)	64 (60)	68 (65)	72 (69)	71 (71)	85 (75)	77 (83)	(77)	-8 (-6)	
인력사정 ³⁾	82 (82)	81 (85)	81 (82)	89 (84)	84 (88)	83 (85)	83 (83)	81 (82)	84 (82)	84 (82)	85 (86)	87 (85)	81 (84)	82 (81)	78 (83)	79 (79)	83 (81)	78 (84)	(79)	-5 (-5)	

주: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내는 전망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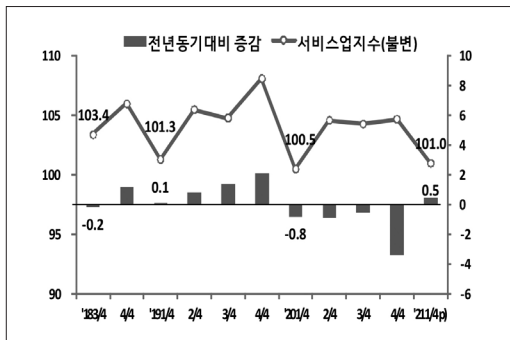
2) 5월 실적 BSI 및 6월 전망BSI는 6월 실적BSI 및 7월 전망BSI와의 비교를 위해 실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치로 수정하였음

- 6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19.0%), 내수부진(14.5%), 경쟁심화(12.7%) 등이 상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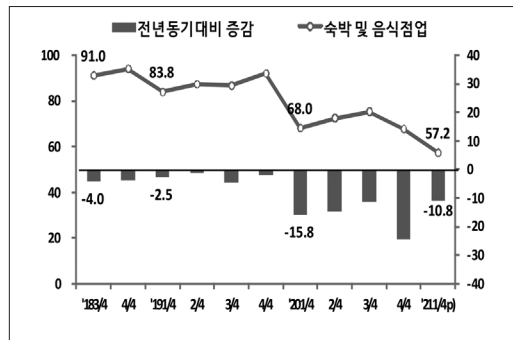
(2) 서비스업

- 2021년 1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1.0(추정치)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보험업(138.2-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상승(+12.4p)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57.2-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하락(-10.8p)

〈서비스업 생산지수(전년 동기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분기)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 5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⁷⁾는 89.6으로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함.
- 신발·가방, 화장품, 기타상품, 가전제품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은 증가.

(2015=100, %/ 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p		
원계열	93.0	86.3	89.5	82.5	88.1	85.2	82.8	79.7	79.7	86.5	85.2	84.4		
전년동월(기)비	-3.6	-7.2	-5.8	-8.5	-8.1	-6.6	-4.1	-10.9	-3.4	-1.8	0.0	5.9		

구 분	2019			2020												2021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p	2p	3p	4p	5p
원계열	80.3	86.5	88.8	100.4	65.0	73.7	76.1	84.1	78.4	79.7	84.5	95.2	85.1	83.1	87.5	87.5	87.5	78.2	79.9	89.6
전년 동월(기)비	-8.2	-2.6	-8.8	7.0	-23.2	-18.3	-2.4	-4.8	-3.4	-2.7	-0.7	-2.3	6.0	-3.9	-1.5	-12.8	34.6	6.1	4.3	6.5

7)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 전국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의 월평균 판매액을 지수로 만든 것임. 100이 평균임.

(3) 건설업

① 연도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연도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수주액	3,006,648	2,746,359	3,358,561	1,616,643	3,418,023	2,909,215	3,673,162	4,314,399	2,616,885	3,315,188
공종별	건축	1,730,185	1,949,981	1,514,818	950,232	2,157,153	2,114,379	1,902,504	1,802,489	2,309,107
	토목	1,276,463	796,378	1,843,743	666,411	1,260,870	794,836	1,770,658	2,511,910	756,374
발주자별	공공	1,269,293	1,071,735	854,889	598,788	1,462,663	1,026,814	1,560,865	2,266,867	1,137,655
	민간	1,688,229	1,626,911	2,464,688	903,057	1,899,537	1,805,097	2,016,806	1,474,160	2,202,182
자별	국내외국기관	7,887	9,819	19,893	16,861	4,683	5,352	9,167	1,890	920
	민자	41,239	37,894	19,091	97,937	51,140	71,952	6,053	28,836	4,150

- 2020년 건설수주액은 3조 3152억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983억이 증가함.
- 공종별에서는 2019년에 비해 건축이 4,486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이 2,497억이 증가함. 즉,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개발이 건설업의 호황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음. 공공발주가 621억이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가 약 7,280억이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남.

② 분기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분기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8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p)
건설수주액	1,189,929	442,525	657,767	222,679	1,328,755	760,947	443,969	446,232	1,667,327	457,644
공종별	건축	499,439	335,696	529,242	175,590	834,851	531,098	339,955	330,287	1,105,248
	토목	690,490	106,829	128,525	47,089	493,904	229,849	104,014	115,945	562,079
발주자별	공공	806,008	209,427	157,083	98,394	697,396	242,336	123,118	132,728	578,861
	민간	371,107	233,098	499,924	120,819	630,515	517,199	289,304	309,004	1,088,466
자별	국내외국기관	728	0	581	339	0	311	54	106	0
	민자	12,086	0	179	3,127	844	1,101	31,493	4,394	0

- 2021년 1분기 전북 지역 건설수주(추정)액은 4,576억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약 3,033억이 감소함.

- 전년 동분기 대비 공종별은 건축은 2,740억이 감소하였고, 토목은 293억이 감소함.
- 전년 동분기 대비 발주자별 건설동향은 공공이 852억이 감소하였고, 민간은 2,177억이 감소하였음.

③ 월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총액

(2019-21년 월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165,666	169,487	107,372	436,919	78,787	142,061	50,389	69,077	53,148	341,830	402,424	584,501
공종별	건축	126,455	141,956	67,285	426,123	48,164	54,955	42,927	45,594	36,945	318,586	259,826
	토목	39,211	27,531	40,087	10,796	30,623	87,106	7,462	23,483	16,203	23,244	142,598
발주자별	공공	39,529	155,535	14,363	23,515	34,546	99,022	7,271	25,417	15,980	40,690	216,407
	민간	126,137	13,952	93,009	412,823	44,241	42,860	41,441	42,210	37,168	300,296	186,017
자별	국내외기관	0	0	0	581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179	1,677	1,450	0	844	0

구분	202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263,783	445,473	51,691	100,728	90,719	252,522	110,096	169,768	166,368	434,239	449,510	783,578
전년동월대비	98,117	275,986	-55,681	-336,191	11,932	110,461	59,707	100,691	113,220	92,409	47,086	199,077
공종별	건축	198,408	306,153	26,537	60,986	81,303	197,666	77,572	129,167	123,548	380,595	210,100
	토목	65,375	139,320	25,154	39,742	9,416	54,856	32,524	40,601	42,820	53,664	239,410
발주자별	공공	72,391	138,315	31,630	44,756	14,748	63,614	35,370	44,819	52,539	67,300	207,920
	민간	191,167	306,057	19,975	55,949	44,447	188,908	73,453	121,731	113,820	366,939	241,590
자별	국내외기관	225	0	86	23	31	0	0	106	0	0	0
	민자	0	1,101	0	0	31,493	0	1,273	3,112	9	0	0

구분	2021											
	01	02	03	04 (p)	05(p)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84,954	80,371	286,991	166,460	460,130							
전년동월대비	-178,829	-365,102	235,300	65,732	369,411							
공종별	건축	53,786	24,434	174,246	150,061	157,313						
	토목	31,168	55,937	112,745	16,399	302,817						
발주자별	공공	28,138	38,458	90,492	38,493	298,213						
	민간	56,816	41,774	196,325	127,346	161,917						
자별	국내외기관	0	0	174	621	0						
	민자	0	169	0	0	0						

- 전년동월대비 1월과 2월에 건설수주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3월부터 회복세임.
- 공종별 5월 수주현황은 전년동월대비 건축은 760억이 증가하고, 토목은 2934억이 증가하였음.
- 발주자별 5월 수주 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공공은 2,834억이 증가하고, 민간은 1,174억이 증가하였음.
- 5월 수주현황의 특징은 공종별에서 토목이 건축보다, 발주자별에서는 공공이 민간보다 많았다는 점임. 정부주도의 토목사업을 통해 고용과 건설경기부양이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함.

3) 수출입 통계

(1) 전국 통계

(단위:백만 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3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2020	금액	43,103	40,912	46,167	36,270	34,855	39,214	42,785	39,469	47,820	44,819	45,752	51,332	512,498
		증감률	△6.6	3.6	△1.8	△25.6	△23.7	△10.9	△7.1	△10.3	7.1	△3.9	3.9	12.4	△5.5
	2021	금액	48,015	44,810	53,828	51,187	50,755	54,798							197,674
		증감률	11.4	9.5	16.6	41.2	45.6	39.7							18.8
수입	2019	금액	45,15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3
		증감률	△1.4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8	△6.0
	2020	금액	42,718	36,977	41,804	37,933	34,662	35,795	38,849	35,818	39,400	39,094	39,945	44,638	467,633
		증감률	△5.4	0.9	△0.4	△15.8	△20.5	△10.7	△11.2	△15.6	1.7	△5.6	△1.9	2.2	△7.1
	2021	금액	44,253	42,193	49,653	50,799	47,811	50,357							186,901
		증감률	3.6	14.1	18.8	33.9	37.9	40.7							17.2
합계	2019	금액	91,322	76,133	88,995	93,828	89,324	84,113	89,840	86,477	83,370	88,046	84,770	89,535	1,045,576
	2020	금액	85,821	77,889	87,971	74,263	69,547	75,009	81,634	75,287	87,220	83,913	85,697	95,970	980,161
	2021	금액	92,269	86,884	103,434	102,010	98,566	105,155							
무역수지	2019	금액	1,01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0
	2020	금액	385	3,935	4,363	-1,662	193	3,419	3,936	3,651	8,420	5,725	5,807	6,694	44,865
	2021	금액	3,762	2,503	4,132	434	2,944	4,441							10,773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6월 현황은 잠정치임(관계청 무역통계 현황)

- 6월 월간 수출입 집계(추정치) 결과,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39.7%(155.8억달러) 증가한 548억달러, 수입은 40.7%(145.6억달러) 증가한 504억 달러로, 무역흑자 44억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임.
-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요 수출품목현황중 반도체(23.7%)·승용차(92.0%)·석유제품(160.2%)·무선통신기기(52.3%)·자동차부품(179.8%)·가전제품(53.2%) 등 증가, 선박(△14.6%)·액정디바이스(△8.5%) 등 감소. 또한 국가별현황은 중국(22.9%), 미국(62.5%), 유럽연합(62.8%), 베트남(43.0%), 일본(32.2%), 중동(4.7%) 등 증가.
- 5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주요 수입품목현황중 원유(165.8%)·기계류(17.4%)·승용차(49.6%)는 증가, 메모리반도체(△8.5%)·무선통신기기(△8.5%)·돼지고기(△10.6%)는 감소. 소비재는 29.2% 증가, 원자재는 61.2% 증가, 자본재는 19.1% 증가함. 국가별 현황은 중국(20.8%), 미국(49.9%), 유럽연합(21.9%), 중동(101.2%), 일본(27.8%), 호주(48.3%), 베트남(13.1%) 등 증가.
- 이미,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부터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진행중이었고,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등 회복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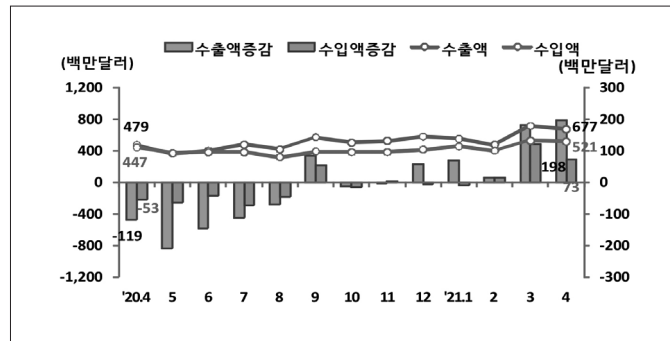
(2) 전북 통계

(단위:백만달러)

항 목	2018		2019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 출	629	568	594	496	569	598	580	550	592	491	490	497	531	527
수 입	478	440	474	361	416	500	434	430	457	366	339	403	384	423
합 계	1,107	1,008	1,068	857	985	1,098	1,014	980	1,049	857	829	900	915	950
무역수지	+151	+128	+120	+135	+153	+98	+146	+120	+135	+125	+151	+94	+147	+104

항 목	2020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	2	3	4
수 출	489	465	538	479	371	406	482	421	575	508	528	584	557	480	719	677
전년동월대비	-105	-31	-31	-119	-209	-144	-110	-70	+85	+11	-4	+57	+69	+15	+181	+198
수 입	469	390	411	448	372	386	385	322	395	383	388	419	461	404	530	521
전년동월대비	-5	+29	-5	-52	-62	-44	-72	-44	+56	-20	+4	-4	-9	+14	+119	+73
합 계	958	855	949	927	743	792	867	743	970	891	916	1,003	1,018	884	1,249	1,198
전년동월대비	-110	-2	-36	-171	-271	-188	-182	-114	+141	-9	+1	+53	+60	+29	+300	+271
무역수지	+20	+75	+127	+31	-1	+20	+97	+99	+180	+125	+140	+165	+60	+76	+189	+156
전년동월대비	-100	-60	-26	-67	-147	-100	-38	-26	+29	+31	-7	+61	+40	+1	+62	+125

〈수·출입액(전년 동기대비)〉



자료: 관세청 지역별 무역통계

- 전북 지역 수출입현황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3월부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증하였음.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변수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님.
- 전북지역 역시 2018년 11,12월과 비교해 2019년 수출입현황통계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위기는 발생되었음.

5. 가계동향

1) 소비자심리지수(CCSI⁸⁾)

- 2021년 6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6으로 전월보다 3.9p 상승.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10.3으로 전월에 비해 5.1p 상승.

8) 소비자심리지수(CCSI):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선택, 이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임. 장기평균치(2003년~2020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임.

	202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북	107.1	100.9	87.5	80.6	87.4	88.5	91.4	95.8	85.5	93.1	99.1	90.1	94.4	95.8	98.4	98.6	104.7	108.6
전국	104.2	96.9	78.4	70.8	79.7	83.7	85.9	89.7	81.4	92.9	99.0	91.2	95.4	97.4	100.5	102.2	105.2	110.3

2) 소비자동향지수(CSI⁹⁾)

-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91→92), 생활형편전망(101→102), 가계수입전망(97→100), 소비지출전망(107→108), 현재경기판단(86→94) 및 향후 경기전망(99→110) 모두 전월보다 상승.
-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92→105),금리수준전망(110→122), 가계저축전망(96→98), 가계부채전망(97→99),주택가격전망(123→125) 및 임금수준전망(116→118)도 모두 전월보다 상승.

연		2019		2020												2021					
월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주요 지수	현재생활형편	96	93	95	93	85	79	80	86	87	89	86	87	91	85	87	87	86	88	91	92
	생활형편전망	99	99	99	98	88	86	90	92	92	95	90	93	96	91	94	95	96	97	101	102
	가계수입전망	98	99	101	99	90	86	91	90	92	95	88	94	94	90	93	95	94	94	97	100
	소비지출전망	109	108	112	105	99	92	96	93	98	100	90	96	101	96	100	99	103	101	107	108
	현재경기판단	79	77	83	72	48	40	45	52	57	64	49	62	78	57	60	62	73	74	86	94
	향후경기전망	89	89	96	85	70	66	78	77	76	83	72	84	93	82	86	92	96	96	99	110
여타 지수	취업기회전망	92	89	94	89	72	66	75	71	73	80	68	77	87	77	79	83	86	89	92	105
	금리수준전망	86	90	96	93	77	74	83	79	88	88	85	90	94	93	98	102	111	108	110	122
	가계저축전망	98	94	94	95	91	87	89	91	91	94	90	94	95	93	93	93	93	94	96	98
	가계부채전망	97	98	98	98	100	99	100	98	102	97	101	98	98	100	99	100	101	100	97	99
	주택가격전망	106	116	108	102	104	92	93	105	112	112	108	112	118	125	124	123	122	118	123	125
	임금수준전망	118	119	120	117	108	103	106	106	112	113	106	110	110	111	112	111	113	114	116	118

9) 소비자동향(태도)지수(CSI): 장래의 소비지출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경제상황과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이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됨. 지수의 값은 0~200사이에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크면 그 반대임.

6. 현황 및 대안

1) 보고서 요약

- 전국적으로, 고용현황은 2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3월부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 5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대비 619천 명이 증가함.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취업자(+455천 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노인일자리아업(사업개입공공서비스업, +464천 명)의 취업자 증가, 상용(+355천 명)·일용(+307천 명) 증가로 인한 결과임, 위기에 직면한 땀질처방 대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정책이 요구됨.
-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31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9세 이하(+14천 명)와 60세 이상(+24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7천 명)과 사업개입 공공서비스업(+25천 명)이 주로 증가하였음,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으나, 농도로서의 특징(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통계의 이면(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실업률),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 2020년 5월 기준 전북지역은 전국대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음. 전년동월 대비 전국추세는 자영업자 1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 10천 명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9천 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 3천 명이 증가했음. 특히, 타시도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전북지역은 임금노동자 중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중이 높음.
- 5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음. 특히, 제조업의 경우 현재의 경기뿐 아니라 이후 경기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는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음.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의 안정세로 인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응답비중이 줄어든 대신, 내수부진등이 공동으로 지적되었고, 제조업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 비제조업에서는 경쟁심화가 지적되었음.
- 5월 건설수주 현황에서 보았을 때, 공종별 토목사업, 발주자별 공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SOC 토목사업을 통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하지만, 전형적인 땀질처방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됨.

- 수출입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전년 대비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이 시작되었음. 2020년 4분기부터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성장이라고 볼 수 없음.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수입의 증가로 유추했을 때, 코로나 종식에 따른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계동향조사결과 이후의 전망에 대해 부정과 긍정의 경계에 있음, 전월에 비해 긍정답변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경제의 회복효과가 아직 민간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음이 드러남. 기업경기조사와 가계동향 모두 전국 평균 수치에 약간 미달함.

2) 이후의 대안

-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정책의 근원적인 대안은 직업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러한 기반 속에서 필수 산업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전기, 가스, 교통, 수도, 식량 등의 필수산업과 돌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생태 등의 필수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 역시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음. 단기처방과 일자리수치에만 연연함. 그러다보니,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 중심임. 고용정책은 일자리에 사람이 부품처럼 채워지고 교체되는 것이 아닌, 일대기를 보육, 교육, 연금, 사회복지정책 등과 연관 속에서 기획되어야 함.
- 한국의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은 코로나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극복임.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 불로소득 및 부자과세를 기반으로 한 조세형평성 강화, 최저임금인상, 저임금구조 개선 등 1차분배시스템 강화, 사회복지 강화임. 이는 여러 조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음.
- 또한, 경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점은 내수시장의 강화임. 특히, 농수산물 등의 필수 자원에 대한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19년 기준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63.51%로 2018년(66.08%)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G20국가 중 독일(70.82%) 다음으로 높음.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19.34%와 28.08%임) 2020년 GDP(1,586,786백만달러) 대비 무역(수출입 합계 980,161백만달러) 의존도는 61.77%임.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내수시장 확대보다는 무역량(특히, 수출)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계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됨, 그러므로,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중요성이 드러남.

- 전북 지역의 성장의 동력을 외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보임.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 유치에 집착하는 것은 GM과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지역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각종 기업상담센터 유치 사례 참조). 자본은 이윤이 없다고 생각되면 철수함. 또한, 건설토목사업 역시 생태와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 부를 자본과 부유층에게 집중시키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없음.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과 성장의 기제를 내부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산업정책방향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SOC 기획사업과 사행성 사업 중심이 아닌) 농산어업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먹거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친환경·친노동 제조업과 지역강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해야 함.
-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설비(불변자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설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아니라 착취율에 의존하게 되므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게 됨.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됨.
- 전북지역의 이후전망은 (RGDP:지역총소득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보다는 (RGNH:지역총행복지수로 상징되는)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역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가족(호혜와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회 복지와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제대로 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청장년층의 고용을 확대해야 함. 저임금노동자등 사회적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소외와 차별을 극복해야 함,

〈 참고 자료 〉

- 2021년 5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고용노동부, 2021. 06. 18)
- 2021년 5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6. 30)
- 2021년 5월 전라북도 고용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6. 09)
- 2021년 5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06. 02)
- 2021년 6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6. 24)
- 2021년 2/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6. 29)
- 2021년 6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6. 25)
- 2021년 4월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06. 21)
- 2021년 5월 수출입현황(확정치)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6. 15)
- 2021년 6월 수출입현황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07. 01)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021. 07. 01)